

영암교육지원청, '학교공간혁신 선진지 시찰' 시찰

미래위한 학교공간 조성·교육문화 만들어가는 과정

'광산구야호센터' 사례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계획

영암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애)은 8월 19일 광산구야호센터와 (합평)손불서초등학교에서 학교공간혁신 선진지 시찰을 했다고 밝혔다.

학교공간혁신은 단순히 노후화된 학교시설을 개선하는 시설사업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 학교 공간을 조성하고 학교에 대한 생각을 바꾸며, 교육 문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말한다.

이에 영암교육지원청은 학생들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손불서초등학교의 사례와 청소년과 주민들을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광산구야호센터의 사례를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이번 선진지 시찰을 계획하였다.

손불서초등학교에서는 원과 휴식공간 및 외부 학습 놀이공간 구성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등에 대한 김영섭 교장의 강의와 학생들과 교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혁신 현장을 들여다보았다.

광주야호센터에서는 '청소년이 지금! 행복해지는 삶, 주민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삶' 주제로 야호센터장의 강의와 야호센터의 공간 현장을 살펴보았다.

손불서초등학교 김영섭 교장은 "학교 공간은 아이들이 가장 오랫동안 머무는 삶의 공간으로 사람답고 가치 있는 삶을 맛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학교의 주인인 아이들에게 가고 싶은 학교, 삶이 재미있는 학교가 되도록 학교의 공간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시찰에 참여한 신복초 박상진 학생은 "손불서초등학교 교실은 게시판이 없어서 교실이 깔끔해 보이고, 고가트 자전거, 해먹, 트림플린 등 수많은 놀이 기구가 있어 학교 곳곳이 놀이터처럼 보인다"며 "우리 학교도 집 같은 교실, 키즈카페 같은 운동장이 되도록 학생회와 학교에 건의하여 신복초등학교만의 놀이학교를 만드는데 참여하고 싶다"고 하였다.

김성애교육장은 "21세기 교실에서 21세기 교사들이 21세기의 아이들을 가르칠 수



이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2021년 영암청의 목표 중 하나이다"며 "한국판 뉴딜정책과 관련하여 디지털뉴딜, 그린뉴딜에 부합하는 다 되는 교실, 다 품은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였다.

영암=조대호 기자

순천대 전남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홈스쿨 체험박스' 출시

농업경영체와 협력해 만든 체험 키트



순천대 전남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이하 전남6차센터)가 코로나 19와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융복합산업인증경영체를 돕고, 지역 초등학생에게 안전한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홈스쿨 체험박스'를 출시했다.

'홈스쿨 체험박스'는 농업경영체가 준

비한 소품을 1인용 체험 박스 형태로 제공하고, 전남6차센터가 제작한 동영상 강의를 통해 각 학교와 가정에서 제품을 직접 만들면서 농산물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꾸며진 비대면 체험프로그램이다.

'홈스쿨 체험박스'는 12개의 체험프로그램(▲아이스크림/슬러시 만들기 ▲포피피자 만들기 ▲순수건 염색하기 ▲반려식물키우기(다육, 편백, 버섯) ▲우리밀 케이크 만들기 ▲쿠키집만들기 ▲꽃차 만들기 ▲구슬팔찌 만들기 ▲도마 만들기 ▲압화만들기)으로 구성되었으며, 과밍하우스 등 8곳의 인증경영체가 참여했다.

순천대 전남농촌융복합센터는 최근 프로그램 참여 신청을 받은 결과 전라남도 20개 시군 50개 초등학교에서 207개 프로그램, 7,600여 개의 체험박스를 신청해

약 1억 원의 매출 효과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순천대 송경환 전남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장은 "코로나19 등 위기 상황에도 비대면 트렌드에 발맞춰 새로운 형태의 사업을 꾸준히 개발한 결과, 판로에 목마른 인증경영체와 체험활동이 필요한 교육 현장 양쪽 모두에 도움이 되는 체험프로그램을 선보일 수 있었다"며 "우리 센터는 앞으로도 우수한 농산물과 기술로 발전하는 농도(農道) 전남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대 전남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는 지역농산물 50% 이상, 국내산 100%의 농산물을 사용하여 제품공과 체험, 관광, 농가 맛집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체를 엄격히 심사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을 부여하고 이들 경영체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전남교육청, 원격수업 인프라 구축 위한 행보 시작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은 코로나19 재유행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초·중·고 원격수업을 더욱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원격수업 인프라 확충과 시설개선 등 학교 현장 지원에 발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19일 교육지원청과 화상회의를 개최하였다.

전국적으로 온·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면서 일부 노후화된 교원용 PC와 인터넷 기반시설로 온라인 학습자료 제작과 교사와 학생 간 양방향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이에, 전라남도교육청은 지난 6월 각급 학교 1,264개 교실에 무선인터넷을 구축하였고, 7,500대의 노후PC 교체를 완료하였다.

또한 112억 원을 투입하여 오는 10월 말 납품을 목표로 교원 원격수업용 노트북 9,300여 대를 각급학교에 보급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그동안 무선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었던 3,900여 개의 일반교실에 107억 원을 투입하여 무선AP 등을 설치함으로써 교내 전 교실에서 온라인수업이 가능한 교육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 보급하는 노트북은 지난 5월에 출시된 고성능의 CPU를 탑재한 최신기종이며, 무선AP는 10기가급 WI-FI6 버전을 설치함으로써 타시도보다 우수한 학교 내 온라인 학습공간이 선제적으로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환 기자

'세상으로 한 발짝 나아가기' 여름방학 프로그램

여수교육청, 5일간 특수교육대상학생 51명 대상 운영

여수교육지원청(교육장 김용대)은 8월 10일부터 8월 14일까지 5일간 관내 초·중·고 특수교육대상학생 51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우수 체험처 9곳에서 2020. 특수교육지원센터 여름방학 프로그램 '꿈 가득, 희망 가득, 행복 가득'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올해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프로그램 참여 인원을 축소하고 발열체크 및 마스크 착용, 손소독 실시 등 코로나19 예방지침을 준수하여 진행됐다.

여수 관내 우수 진로 체험처를 활용한 이번 방학 프로그램은 원예, 도예, 미술, 공

예 등 다양한 신체·정서적 활동으로 이루어진 체험 중심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바리스타, 제과제빵, 드론, 3D프린팅 등의 쉽게 접할 수 없는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자기개발 도모와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학생은 "처음에 드론을 조종하는 게 어려워서 답답했는데 선생님이 잘하는 방법도 알려주시고 계속 연습하니가 장애물도 넘어갈 수 있어서 재미있었다. 그리고 드론 선물도 받아서 기분이 좋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광주동부교육지원청, 학원·교습소 등 성범죄 전력 등 전수 조사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목적...오는 9월 11일 까지

광주동부교육지원청이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및 학원에 취업한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성범죄 전력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8월19일~9월11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동부교육지원청은 관내 학원 1,237개소

에 등록된 강사 4,396명, 교습소 408개소의 운영자·직원, 개인과외교습자 1,710명 등 6,100여 명을 대상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활용해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에 연루된 적이 있는지를 조회하고, 외국인강사에 대해서는 관할경찰서에 일괄 의뢰해 확인한다.

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복지과 학원업무 관계자는 "설립·운영자가 범죄 전력이 있으면 기관 등록 취소, 취업자가 문제가 있으면 해당 기관에 해임을 요구할 방침이다"며 "앞으로도 매년 성범죄·아동학대범죄 전력조회를 실시해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마음 놓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인호 기자

